

완도군, 무농약 바나나 재배 성공 '첫 수확'



완도군에서는 지난 3월 11일 완도읍 장좌리 바나나 재배 농가에서 바나나 첫 출하시기에 맞춰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신우철 군수, 허궁희 군의회 의장, 김진수 농협완도군지부장, 아열대 과수 재배 농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완도읍 장좌리 재배농가서 현장 평가회 개최 송키밥 품종 재배...관내 초등학교 등에 납품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3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과수 분야 9개 시범 사업(44개소)을 추진하였으며, 재배 기술 연구와 하우스 시설 구축 등을 지원했다. 현재 완도군에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1개소(600평)이다. 바나나는 '송키밥'이라는 품종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식물체의 크기가 1.5~2.5m로 작고, 다소 저온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해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가 적합하다. '송키밥'은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 칼륨 및 비타민류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와 펙틴은 변비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을 주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 및 혈관 확장을 도와 고혈압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한편 수확한 바나나는 관내 초등학교 등에 납품되고 있다. 완도군에서 바나나 재배에 처음으로 성공한 커피나무리 김원삼 대표는 "처음에는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군과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으로 바나나를 수확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무농약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에서 바나나 재배에 성공한 것은 아열대 과수 생산지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다양한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 보급과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축제 관광 부문...지난해 첫 온라인 호응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지난해 비대면으로 열린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수상했다.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은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등이 후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온·오프라인 축제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축제로 개최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현장 유튜브 생중계로 문화·예술, 관광지, 농수 특산물 등 진도군을 널리 홍보했다. 또 온라인 누적 조회수 12만회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어 축제 관광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과 함께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도 선정됐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국공장 한옥으로 다시 태어난다

19억 6천만 원 투입해 올해 7월까지 6개월간 개축공사

강진읍 동성리에 위치한 강진군 국공장 '양무정'이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한옥으로 다시 태어난다. 양무정은 2001년 건립돼 20년이 넘는 경량철골 판넬구조 건축물로 시설이 노후화가 되었고 장소가 협소하여 경기장 규격에 맞지 않

아 각종 국공대회 개최가 어려워 개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이번 국공장 개축사업에 총 사업비 19억 6천만 원(국비 5.9억, 군비 13.7억)을 투입해 대회 개최 규격 조건에 맞는 경기장 시설을 갖추고 노후화된 외벽, 화장실 등을 새롭



게 인테리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무정 개축이 완료되면 2022 김억주 장군배 전국 궁도대회, 제12회 전남 8개 시군

진선 궁도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허진영 스포츠산업단장은 "군 국공장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 공간이자 생활체육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라며 "국공장이 여러 편의시설을 갖춘 한옥식 건물로 탈바꿈하면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간,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통합의료 선도 모델 개발 '최우수' 평가

장흥통합의료병원, 연구지원사업 1단계 평가...3년간 43억2천만원 지원

장흥군은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보건복지부 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과제 선정으로 3년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총 43억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장흥군은 이같은 연구 실적이 지역 통합의료산업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연구팀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한 1단계 연구에서 뇌졸중 후 6개월 재활(운동기능장애 및 인지장애, 유방암, 근감소증, 섬유근통,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개발했

다. 연구팀이 작성한 통합의료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방법론은 IMR(통합의료 분야 우수지원)에 게재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에 개발한 통합의료 서비스 모델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평가하고 환자 중심의 임상 진료 지침(의사 진료 시 진단 및 치료법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통해 표준 임상 경로(CP)를 개발할 방침이다. 원광대 산하 6개 병원에서 레지스트리 연구를 통해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통합의료 서비스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통합의료서비스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의·한의 전문가 통합교육 모델을

개발해 통합의료 전문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힘을 예정이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경력단절여성 취업 준비 20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해남군은 구직중인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 준비 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취업지원기관에 구직을 등록한 경력단절여성으로, 금액은 20만원이다. 전라남도에는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35세부터 54세(1968.1.1.~1987.12.31.) 경력단절여성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기관에 구직 등록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은 4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에서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12월까지 취업준비를 위한 도서 구입, 수강료, 면접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생애 1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2021년 경력기움바우처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